

■ (추경) 2026년 시각예술 창작산실(우수전시)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시각예술 창작산실(우수전시) 추가공모 사업
- 회의일시 : 2026년 6월 2일(화), 12:30 ~ 17: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남인숙, 변종필, 윤동희, 이윤희, 이준

2026년도 문예진흥기금 추가공모 <시각예술 창작산실(우수전시)>사업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시각예술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2.5억 원을 편성하여 우수 기획전시를 발굴하고, 작품의 창작 활성화 및 예술 향유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각예술 분야의 기획자 및 예술 단체가 추진하는 전시 구현 및 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심의 전문성 및 심의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입니다. 심사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추경사업의 긴급성을 고려하고, 심의 절차와 방법, 공공 기금 사업의 취지와 중대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수행했습니다. 올해 신청 접수한 총 60건 가운데 심의 대상은 56건이었으며, 사전 전수검토 및 온라인 채점을 통해 최종 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 기준은 공지된 대로 신청주체가 5년 이상의 활동과 안정적으로 수행한 성과를 판단하는 사업수행역량(30%),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추경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50%),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공공재원이라는 성격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공공성(20%)을 각 평가항목별 세부지표에 따라 엄격히 적용, 본 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우수전시 프로젝트를 선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공지된 평가 항목을 엄정하게 적용하되 2026년이라는 시간성이 시각 예술 현장에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함께 헤아렸습니다. 그 맥락을 공유하는 것이 심의 총평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후 위기, 생태 붕괴, 사회 분열, 전쟁의 비극까지. 오늘날 미술은 자본주의와 기술의 폭력에 노출된 현실의 빈곤을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발화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높여 스펙터클로 향하던 미술이 ‘돌봄’ 과 ‘관리(stewardship)’ 라는 새로운 언어로 전환하고 있음을 여러 기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AI를 둘러싼 기술 지형도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이 알고리즘적 (피)지배와 흠결 없는 디지털 생산에 몰두하는 사이에 미술은 인간의 직관과 신체성이라는 미완성과 불완전함을 감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공통으로 주목한 흐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재난과 재해의 시대에 다수의 기획이 기술 이면에 내재한 ‘불안’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체(성), 그 신체(성)가(이) 거주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준 높은 기획을 통해 동시대 경향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장소성, 기억, 아카이브 등 1990~2000년대를 관통했던 주제 의식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의견도 새길 만합니다. 어떤 시대적 징후가 임계점이 가까워졌음은 진부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 ‘끝’을 선언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인가, 그저 익숙한 언어를 익숙한 방식으로 반복하는 기획인가를 고려하였습니다.

작가가 기획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가의 생활 또는 일의 공간을 전시로 삼는 기획도 있었습니다. 기획은 작가의 작업 세계를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비평적 시각과 기획적 역량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협업’의 흔적이 기획에 드러났는지 주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로 전시가 공간의 알리바이로 기능하지 않고, 공간을 통해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기획에 박수를 보냅니다.

인바운드 국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전시와 프로그램은 대부분 높은 완성도를 선보였습니다. 단순히 수준 높은 해외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프로젝트인지, 국내 현장의 질문과 맞물려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인지, 그리하여 국제 교류의 맥락이 현장과 유기적으로 접속하여 실질적인 과문을 일으키는지를 집중해서 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의는 ‘추경 사업’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이루어졌음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예술 주체들도 준비에 시간의 제약이 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각각의 예술 주체가 모든 역량을 기울여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현 가능성, 예산 타당성, 지속 가능성, 미술 현장 및 예술 수용자와의 연결성, 지역 고려 등 사업이 지향하는 ‘공공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의 ‘우선순위’를 판단했을 뿐 역량의 절대적 우열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심의 과정을 공정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실무자분들의 노고를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최전선에서 열정과 성의로 고군분투하는 모든 예술가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전담심의위원 일동